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1사무 16,1-7.10-13

[화답송] 시편 23(22),1-3.3.4-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에페 5,8-14

[복음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 요한 9,1-41

[영성체송] 요한 9,11.38 참조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복음 묵상]

“신앙, 새로운 눈을 갖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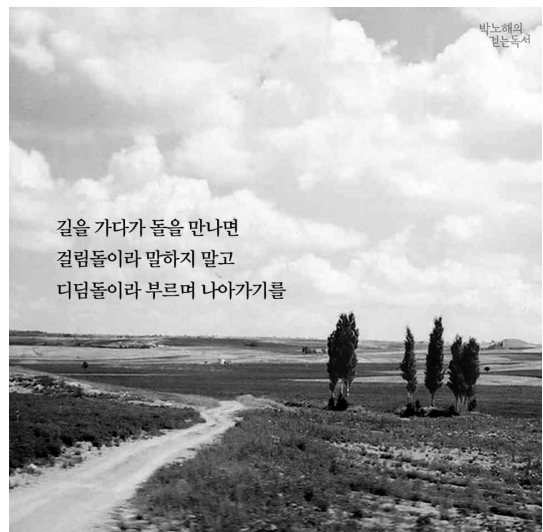
오늘 복음은 눈먼 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보는 자’가 되도록 초대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몇 달이 지나면 완벽하게는 아닐 지라도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눈은 성장 단계에 따라 그리고 관심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점차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가족들만 보이다가 차츰 장난감이나 먹을 것들이 보인다. 조금 더 성장해서는 친구들이 보이고 일이 보이며 돈과 사랑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하나만을 집중해서 보다보면 다른 것들에는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것에만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님이 되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영적인 것에 장님이 될 수 있다. 또 죄라는 어둠 속에 살며 선한 것에는 장님이 될 수 있다.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태생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다.

요한 복음사가는 그의 눈이 점차 새로운 것을 보는데 익숙해지는 것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소개한다. “예수라는 분”(11절), “예언자”(17절), “주님”(38절). 내가 오늘 진실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신앙은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자. 과연 신앙을 갖고 난 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무엇인가?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예비자 및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건진교리	주일 10:50am-12:10pm, 교육관 5호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2.26 -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 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 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청년회 안내]

청년회(FYNY) 모임	주일 미사 후	Damiano Hall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 04:00pm	Conf. Rm(2F)
Choir 3 (야훼이레 찬양팀)	첫째 토 12:00-03:00pm 둘째 토 03:00-05:00pm	Francis Room
청년 성서모임	주일 01:00pm	Damiano Hall
청년 성령기도회/ 청년 Lectio Divina	1st, 3rd 수 07:10pm/ 2nd, 4th 수 07:10pm	Francis Room

[다가오는 행사]

성주간과 파스카 성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 4.9. 8Pm. 윗성당
- 주님 수난 성금요일 : 4.10. 8Pm. 윗성당
- 파스카 성야 : 4.11. 9Pm. 윗성당
- ☺ 파스카 성야 미사 중에 세례 및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제24차 청년 성령세미나(2박3일)

- 일시 : 5.22(금) 11am-24(주일)5pm
- 장소 : 뉴튼 수도원
- 지도단 : 김영민 미카엘 신부, 김정경 실바노 신부, 청년 성령 봉사회팀
- 인원 : 선착순 45명
- 신청마감 : 5.11(월)
- 대상 : 18이상 35세 까지 청년
- 참가비 : \$300.00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김영희 안나 347.665.6696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청년성서모임 참가자&봉사자

청년성서모임은 3-6명의 소그룹 안에서 성서 말씀과 생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아래 봉사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신청마감 : 3.22(주일)
- 개강 : 3.29(주일)→연기

<요한>과정은 마감되었습니다.

- 대표봉사자 : 이수현 소화데레사 646.251.4413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 수강자

이상, 순종, 사랑을 모토로, 그리스도와와의 만남과 동행을 위한 꾸르실료 3박4일의 여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 4.23(목)-26(일)
- 장소 : 뉴튼 수도원
- 대상 : 영세받은 지 3년 이상 된 여성신자로 본당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분
- 문의 : 본당 올드레야간사 민완준 필립보 929.444.1411

성경통독 입문서 판매 : \$20

사무실에서 구입하세요.

본당 게시판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지침]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는, 교우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당방침을 알려드리오니, 지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당의 모든 미사는 중단합니다(평일 미사도 중단합니다).
2. 주일학교, 한국학교, 레지오 회합, 예비신자 교리, 모든 단체 모임(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청년 성서모임 포함)도 중단합니다.
3. 한국이나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나, 가족 중에 방문하신 분이 있는 경우, 최소 2주 자가 격리를 합니다.
4. 미사가 중지된 지금 주교님이 집전하는 미사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 5단, 해당 주일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지군자(스테파니) 전마사자(카타리나)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이래로 주욱 가짜 뉴스가 있었다.”

가짜뉴스는 하느님 말씀을 왜곡한다

사순 시기 전례 안에서 접하는 첫 번째 말씀은 '가짜뉴스'에 관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숨 역시 말씀의 출발점이다)을 불어넣으셨지만, 사람에게서 나온 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짜뉴스' 양산과 유포에 참여하는 것이다(사순 제1주일 제1독서 창세 2,7-9; 3,1-7).

하느님 말씀의 결과물인 인간의 말은 이처럼 처음부터 하느님 말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현실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상마저도 왜곡하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지만, 더 귀중한 뭔가는 당신만을 위해 유보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인간에게 유보된 무엇인가를 손에 넣고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역사가 펼쳐진다(도미니코 바르텔르미, 하느님과 그분의 모상).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사순 제1주일 제2독서 로마 5,12) 때가 차서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죄의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다준다.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사순 제1주일 복음 마태 4,4c)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신다(필리 2,6-11).

'조상들의 언어'는 가짜 뉴스에서 해방시킨다

타보르 산 위에서 베드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주님께서 모세 및 엘리야와 나누는 대화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 하는 사실(사순 제2주일 복음 마태 17,1-9) 역시 같은 맥락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름 대화에 끼어들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걸돈다. 대화의 차원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구사하는 언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처음부터 대화 밖에 소외된 채 서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따르면,

'조상들의 언어를 구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의 말은 '조상들의 언어'를 배우고 구사함으로써 가짜뉴스라는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마카베오기 하권 7장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일곱 아들을 상대로 하나 하나 '조상들의 언어로' 대화한다.(특히 21절과 27절) 이 대화에 세상을 대표하는 박해자 임금 안티오코스는 제외된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현실을 왜곡하며 하느님 말씀에 대적하는 임금을 상대로 어머니는 '조상들의 언어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며 상기시킨다. 전하는 내용과 형식이 완벽하게 일치할 이룬다. 조상들의 언어는 하느님 말씀, 곧 '율법과 예언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머니는 순교라는 '타보르 산' 위에서 '조상들의 언어로' 모세(율법)와 엘리야(예언자)와 대화한다. 타보르 산 위의 주님에 대한 전형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결국 가짜뉴스에 의해 구축된) 기존의 것들과 결별하고(사순 제2주일 제1독서 창세 12,1-4ㄱ)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마태 17,9)

베드로가 타보르 위에 지으려 했던 '초막 셋'(17,4)은 가짜뉴스의 결과물에 대한 상징이다. 사순 제3주일 하느님 말씀들은 '목마름'과 '물'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실상 하느님 말씀이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다. 복음 말씀에 목마른 여인이 하나 등장한다. 얼마나 목이 탔으면,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겠는가? '신약판 팜므파탈'이라고나 할까. 사실 그녀에게 먼저 다가온 것도 주님이시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는 상처를 남기고 돈은 이자를 남긴다.”는 한 유명 여배우의 대사처럼 가짜뉴스에 기반한 현실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맞본 자이다. '이번에도 역시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거리'를 둔다.

스스로의 실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아닌 하느님 말씀에 뿌리를 둔 참 현실만이, 진리만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짜뉴스의 양산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던 그녀는 일종의 순교자로 거듭난다. 그리스어 martyria는 증거와 순교를 동시에 의미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루살렘 vs 사마리아'라는 프레임을 양산하고 그 안에 갇히는 데 동참하였다. 그러나 말씀 자체이신 분을 만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대신 진리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을 만나 '조상들의 언어'를 배우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했다.

'조상들의 언어'를 전하는 것은 자선의 극치이다

이렇듯 가짜뉴스에 기반한 역사는 필연적으로 순교로 방향지어 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의 순교로 이끌고 있다. 가짜뉴스에 기반한 말이 안 되는 거짓 현실에서 진리는 항시 순교로 스스로를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역사서>의 대미가 순교이야기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리를 내어준 사순 시기이다.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확산될 위험과 파급효과가 큰 것이 바로 가짜뉴스이다. 나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조상들의 언어'와 얼마나 연관되는가? 가짜뉴스로부터 '단식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어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상들의 언어'를 전하며 '자선을 행하는' 사순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뺄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이기에 서로에게 조상들의 언어를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자선의 극치이다. ♠